

예술춤에 대한 인식조사 - 대학생을 대상으로 -

윤 지 은*

목 차

Abstract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예술춤의 정의

2. 시대에 따른 예술춤에 대한 인식
변화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2. 연구 도구 및 절차

3. 연구내용

IV. 연구 결과

1. 무용 전공자 집단

2. 춤을 접해본 비전공자 집단

3. 춤에 문외한인 집단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A study on the perception on dance as art - Focusing on university students -

Yun, Ji-eun·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As general people have got many opportunities to experience dance as art, it seems that their perception on the dance has been changed in this era. This study supposes the change of perception on the dance as ar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n the dance as art and find the way how to develop dance field in the future. The

*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논문투고일: 2014. 10. 20. 심사일: 2014. 11. 21. 게재확정일: 2014. 12. 7.

research questions are following: What is dance as art? What is the perception on the dance? What is the way we should pursue to be familiar dance to audience in the future?

The focus groups are university students who are in dance major, who are not in dance major but have experience on dance, and who never experience dance. The method of the study is Focus Group Interview that is suitable way to examine perception studies. Each group includes six students to discuss on the issue, and it runs about 90 minutes for each interview.

This study deals with students who are in dance major lives in Seoul and rest of them are not in dance major and live in Choongchung area. This makes more realistic results. Since dance as an art is concentrated in Seoul area, students who live in Choongchung area do not have enough opportunities to encounter dance and they think it is too abstract and unapproachable genre.

As a result of the interview, dance as art is not recognized, as the researcher expected. Therefore, we need more time and trials to people accept dance as art positively. Especially the students who are not in Seoul need more chances to approach dance as art. In the future, many trials will be needed in order to spread positive perception on the dance. Moreover, perception studies according to more specific areas will be expected.

key words: university students, dance as art, perception survey, focus group interview

주요어: 대학생, 예술춤, 인식조사, 포커스그룹인터뷰

I . 서론

과거 예술춤¹⁾에 대한 인식은 소수층만이 향유하는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무용 공연장에는 무용수 혹은 안무가의 지인들로 가득했고 스스로 티켓을 구입하여 공연장을 찾는 관객은 드물었다. 이러한 현상은 예술이라는 장르를 특정 계층인 예술가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결과물로 여겼으며 자신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일반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굳이 공연장을 찾아가 예술춤을 감상하는 일이 드물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일반인들은 과거 광대 혹은 기생에 의해 추어지는 춤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서 예술춤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답습되어진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회, 문화 교육의 발전과 더불어 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대중매체의 발달, 인터넷의 보급, 그리고 최근에는 극장에서 개봉된 무용영화와 발레공연 실황, 텔레비전에서의 서바이벌 댄스 프로그램과 광고 등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예술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1) 예술춤이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급예술로서의 무용을 가리키며 무용, 춤과 동일어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예술춤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무용과에서 분류하는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으로 제한한다.

한 예로 영화 ‘피나(Pina in 3D)’가 국내에 개봉되었고 그 후 피나 바우쉬(Pina Bausch)의 공연장에는 일반 관객들이 많이 찾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현대무용을 취미로 배우는 연예인들이 많아지고, 발레리나들의 텔레비전 출연이 잦아지면서 그동안 일반인들이 접하지 못했던 예술춤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다. 특히 <댄싱9>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소하게 생각하던 현대무용이라는 장르를 도입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새로운 시각적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이지원, 2014). 이를 통해서 <댄싱9>에 출연 했던 무용수들의 공연장에는 일반인 관객의 수가 급증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현상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예술춤에 대한 인식은 변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사회와 문화, 교육의 발전에 따라 예술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무용에 대한 인식조사는 대부분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댄스 스포츠, 힙합 등 대중춤²⁾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다. 조수정(1993)은 무용이 대중 속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서울의 청년기, 성인기를 대상으로 무용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이미 20여 년 전에 이루어졌으며 앞서 논의한 최근의 사회 분위기와 공연 현황으로 비추어 볼 때 현재 대중들의 예술춤에 대한 인식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용인식도에 관한 또 다른 연구들로는 용영신(1998)과 최영식(2010)의 연구가 있으며 두 연구 모두 서울 소재의 대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무용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이처럼 무용에 대한 인식조사는 대부분 서울지역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대학생들의 인식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용에 대한 인식에 관한 다른 연구들을 살펴보면 점차 분야가 세분화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경순(1999)은 현대무용 대중화에 대한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하였고 김지수(2008)는 중요무형문화재 전통무용을 중심으로 한국 전통무용공연에 대한 비전공자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강윤선(2011)은 한국무용전공자를 대상으로 시대적 변화에 나타난 한국춤 인식 실태를 연구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춤과 현대무용에 대한 인식조사로 한정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예술춤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 된다. 특히, 양적 수치로 드러나는 설문조사는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인식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 문화, 교육의 발달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한국 문화의 변

2) 본 글에서의 대중춤이란 댄스 스포츠, 힙합, 스트리트 댄스 등으로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 등의 극장무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칭한다.

동 속에서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예술춤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앞으로 예술춤이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연구 대상은 전문인 집단인 무용 전공생들과 비전공생들, 예술춤에 문외한인 비경험자로 선정하였다. 특히 무용전공자가 아닌 두 집단의 경우에는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서울 지역의 학생들이 아닌 충청도 지역으로 선정하여 조금은 소외된 지역의 문화소외계층의 의견을 가까이에서 들어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더불어 그동안 선행연구들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인식조사를 이루어왔으나 본 연구는 무용분야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질적연구 자료수집방법의 하나인 초점집단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방식을 채택하여 특정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고 비교할 수 있었기에 연구방법론에 있어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예술춤이란 무엇인가?

둘째, 춤에 대한 경험이 예술춤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대학 문화 내에서 예술춤을 활성화시킬 방향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용어 사용의 문제이다. 춤은 순수 우리말이고 무용은 한자어이다. 이 둘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신무용의 유입 과정 중에 등장한 ‘신新’이라는 단어의 의미에서 인식의 차이가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시이 바쿠의 공연을 기점으로 이전의 춤은 ‘옛춤’이고 이후의 춤에서는 무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신무용’이라고 칭하고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여 새롭고 한 차원 높아진 춤으로 이해되면서 춤과 무용이라는 단어의 인식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은 무용은 특수한 소수만이 향유하는 문화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인식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흔히 말하는 예술로서의 무용을 일반인들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 ‘예술무용’ 혹은 ‘예술로서의 무용’ 보다는 ‘예술춤’이라는 단어로 제한하였다.

둘째, 초점집단인터뷰의 규모에 관한 제한이다. 본 연구는 각 참여자가 주제에 어떤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6명씩 구성된 세 집단만을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세 집단은 모두 대학생들로 개인별, 지역별, 문화적 배경의 차이는 구분하지 않았고 첫 번째 집단은 무용전공자이며 두 번째는 교양무용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춤이라는 장르에 대해 전혀 문외한인 이공계 집단으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지역이나 대학생 전체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II . 이론적 배경

1. 예술춤의 정의

예술이 무엇인가, 춤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춤에 대한 개념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계속 변화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단 하나의 해석만으로는 그 의미를 모두 담지 못한다(옹영신, 1998: 8). 춤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면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 왔는데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예술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작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18세기 이후 근대에 들어서 예술의 개념은 '미적인 감흥을 주는 작품을 만드는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활동 능력이나 창조 행위'로 부각되었고 인류의 예술과 사회문화의 관계를 다루는 예술 인류학에서는 예술을 '한 민족 집단의 내부자와 외부자의 사회와 문화를 상징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인간의 행위'로 정의하였다(신상미, 2013: 135-136).

예술은 문화의 발달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감정에 대해서 사색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테면 언어가 감각적 경험과 사실의 관찰을 위한 형식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술의 실천이나 예술에 관한 일반적 지식은 실제적인 감정에 갖가지 형식을 부여해준다. 예술은 자연을 표현 형식으로서 관상하는 감각력의 연마이다. 그러나 서투른 예술은 감정을 타락시킨다. 이렇듯 예술은 문화의 발달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Langer, S. 1984:100-101).

예술의 한 장르인 춤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춤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춤추며 즐기고, 춤으로 문화를 공유하였으며 춤으로 신과 소통할 수 있다고 믿었다. 춤이라는 장르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술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술이 아닐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예술춤이라는 용어는 신상미(2013)가 서술한 것처럼 서양의 발레와 같이 예술적 표현을 목적으로 고도로 조직화된 전문적 수준의 안무가와 훈련을 받은 무용가들에 의해 프로시니엄 무대 위에서 공연되어지는 춤을 지칭한다. 춤에 있어서 순수 예술로서의 춤은 그 자체가 미적인 대상으로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발레 뿐 아니라 현대무용과 한국무용 등 극장에서 추어지는 춤을 예술춤이라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정황 속에서의 춤의 위치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특수한 춤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용되어 오고 있

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의 요소를 잃고 만다. 이런 양상들을 중시하지 않는다면 특정한 지역 등에서의 춤의 일반적 양식 같은 것을 정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까지 한다. 춤이 인간 사회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특질은 문화의 특정 유형에 의해 결정되며 또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춤은 항상 변화한다(로데릭 랑게, 1989:214). 그러므로 정의내리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예술춤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시대에 따른 예술춤에 대한 인식 변화

인간은 삶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즐기는 춤, 구애의 춤, 제의의 춤, 수렵의 춤 등을 추어 왔다. 하지만 춤이 점차 전문화되고 무대화되면서 삶 그 자체인 춤을 예술춤이라는 틀에 가두어 그 위력을 약화시켜왔다. 그래서 춤은 더 이상 삶 그 자체가 아니며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서의 가치도 없어졌다. 특히 춤은 저속해서 고상한 사람들은 춤을 추면 안 된다든지, 춤을 추면 성적으로 부정하다고 생각한다든지, 고지식해서 춤이라는 장르는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든지 등의 춤에 대한 고정관념들로 인해 진정한 춤의 가치와 심오한 의미를 퇴색시키게 되었다. 춤은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로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해주는 힘을 가지고 끊임없이 수용되고 변화되고 있으며, 인종, 문화, 민족, 국가의 모든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상징과 소통의 힘을 가진 강력한 소통 매체로 존재하고 있다(신상미, 2013:462-463).

예술춤에 대한 인식은 다른 예술 장르와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동떨어진 분야로 인식되어 왔다. 서양에서의 무용이란 쾌적한 리듬운동으로 그것은 춤추어 즐기는 것이라는 인식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댄스라는 명칭과 밀착되어 있었으며 동양에서의 무용에 대한 인식 역시 단순히 인간들의 희노애락을 표현해 주던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감정이나 의지 표현의 사고방식에서 출발되어진 움직임이다. 이처럼 무용에 관한 인식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아한 운동으로 개념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옹영신, 1998:9-10).

우리나라의 경우 예술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무관심에서 점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오랜 시간에 걸쳐 사회적으로 활성화되어져왔다(옹영신, 1998:10). 춤의 시작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하면서 의사소통의 방법으로써 존재하다가 차츰 고대인들의 종교적 의식 등의 행사에 커다란 요소로 춤이 자리 잡게 되고 이는 제천행사에 빠질 수 없는 한 부분이 되었다. 문명이 발달한 후에도 춤은 그 목적이 달라져도 중요성은 지속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춤의 위치가 하락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유교사상의 전통적, 관습적 인식으로 인한

것이며 우리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여 사유를 행위보다도 우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육체를 소재로 하는 무용은 하나의 광대놀음과 같이 저급한 것으로 인식되었다(조수정, 1993:12-13).

우리나라 역사에서 해방 전,후로 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춤은 어떠한 의미에서 정상적인 인식풍토를 찾지 못한 것 같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1926년 이전까지 춤에 대해서는 암흑기로 불리는데 과거의 춤이 사회적 인식의 하나인 예술로써의 위치를 격하시킨 것은 전대인 이조 봉건사회의 계급제도가 서민의 소작사로 경멸, 천시, 당시 시대적 상황인 일제 침략과 맞물려서라고 말할 수 있다. 1920년대에 이르러서는 무용에 대한 인식에 혼돈이 일어나는데 이때부터 무용이 예술, 나아가 문화로서 우리의 사회에 등장하게 된다.

우리나라 춤 인식에 대한 태동의 계기가 된 것은 1926년이라 볼 수 있으며 그 당시는 오락성이나 여가의 한계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으로 춤이 지닌 창조적이고 다양한 내면의 세계를 받아들이기에는 당시 생활습성에서 다소 거리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해방 이후 신무용의 시기에 ‘무용’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춤은 무용인만을 위한 예술로 대중과는 동떨어진 존재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해방 전의 한국의 춤인식은 최승희, 조택원 등을 주축으로 많은 문화생과 함께 무용의 인식을 보급하고 낳게 되었다. 인식면에서 춤의 복합된 상태에서 춤에 대한 예술관과 외국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로 적절하게 융화되지 못하고 침체되어 버렸다. 이 시기의 당시 춤에 관한 인식에 대해서도 진정한 발전을 이루지 못해 춤에 대한 인식의 변질마저 가져왔고 역사적, 인적 한계성과 직면하여 무용수 자신의 취약성을 지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춤은 계속 발전, 침체를 번갈아 가면서 성장하게 된다(옹영신, 1998: 18-25).

예술춤에 있어서 큰 변화는 1960-70년대에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이 시기는 근대무용 이후에 새로운 한국 창작춤의 시기 혹은 현대춤의 시기라고 불렀다. 이후 무용에 있어서 양적인 증가 뿐 아니라 질적인 향상과 더불어 춤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춤의 르네상스라 불리는 80년대로 이어진다. 80년대는 춤문화가 가장 풍성했던 시기인데 대학무용과를 중심으로 한 춤의 ‘필요한 제도화와 지성화’ 그리고 ‘창작화 내지는 순수예술화’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80년대는 올림픽개최 등의 행사로 춤이 대중에게 보여 지는 기회가 많아진 시기였으며 이에 힘입어 90년대에는 다양하고 다원적인 속성의 문화가 발전했다. 90년대 예술춤의 경향은 춤으로 역사와 현실을 형상화하고 춤을 매개로 한 동,서양의 접목, 예술춤의 대중화로 요약될 수 있으며 92년은 춤의 해로 지정하여 예술춤의 발전에 이바지 하였다(전혜정, 19993; 김무철, 2001: 73-84).

서양에서도 예술춤에 변화가 일어났다. 20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춤에 있어서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다. 춤은 뮤지컬과 영화 속에 등장하면서 대중적인 춤이 인기를 끌었다. 1920-30년대 대중적인 춤을 장기로 삼은 뮤지컬은 유럽과 뉴욕의 관객을 열광의 도가니로 춤의 열기 속으로 몰아넣었다. 1930년대부터는 영화에서 춤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황금기를 맞았다. 이후 유성영화 시대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영화는 20세기 현대사회에서 시대별로 유행한 춤의 열기를 고스란히 기록해놓은 매체가 되었다(김말복, 2011: 465). 이처럼 과거 인류와 함께 발전하던 춤은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주춤하였지만 사회문화적인 변화로 인해 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춤에 대한 관심이 웰빙과 관련하여 여가생활의 하나로 춤을 선택하는 등 다각도로 일어나고 있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예술춤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예술춤의 현재 위상을 파악하고 앞으로 예술춤이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대학생들 중에서도 무용 전공자와 춤을 접해본 비전공자, 춤이라는 장르에 문외한인 대학생을 중심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이에 앞서 문헌조사를 통해 예술춤에 대한 정의와 시대적 흐름을 살펴보고, 학생들의 인식조사에 있어서는 사전 설문을 통해 춤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현대 자문화를 연구할 때 연구자가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 대상인 현지민들의 반응과 생각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인터뷰 방식(윤택림, 2013:150)으로 태도나 인식조사에 적합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초점집단인터뷰방식을 통하여 대학생들의 생각을 들여보고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학생이다. 대학이라는 곳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교육에 다양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또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교육의 변화와 인식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생기는 현 시점에서 지식인층에 속하는 대학생의 인식은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것(옹영신, 1998: 1)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대학생들의 경우 조수정(1993)의 구분에 의하면 청년기(12-23세)과 성년전기(23-40세)에 해당하는 단계인데 청년기에는 무용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무용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며 성년전기에는 교우를 즐기는 한 방법으로 무용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교육, 접할 수 있는 기회, 사회적 인식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조수정, 1993) 때문에 대상과 시기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예술춤의 확장에 이바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총 3집단으로 나누어 2014년 5월 26일부터 6월2일까지 2주에 걸쳐 각 집단별 약 90분 동안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크게는 춤 전공자와 비전공자로 구분하였고 비전공자의 경우는 춤 장르를 접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과 춤 장르를 전혀 접해보지 못한 학생들로 구분하였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결과를 위해 무용 전공생들은 서울소재 4년제 대학교 무용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비전공자와 춤에 전혀 경험이 없는 집단의 경우 충청도 소재의 이공계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비전공자 집단의 학생들은 무용관련 교양수업을 수강하였거나 춤동아리 활동을 했던 학생들의 집단이었으며 문외한 집단은 평범한 이공계 학생들로 춤을 배워본 적도 없고 공연을 본 적도 없는 학생들이었다. 다음 세 개의 표는 각 인터뷰 집단별 구성원의 세부 전공과 나이, 성별을 제시하고 있다.

표 1. FGI 참여자 현황 (무용전공자 집단)

무용전공자집단						
지역	서울소재의 4년제 대학교					
	1	2	3	4	5	6
성별	여	여	여	남	여	여
나이	22	22	22	25	22	22
전공	발레	발레	한국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현대무용

표 2. FGI 참여자 현황 (춤 접해본 비전공자 집단)

춤 접해본 비전공자 집단						
지역	충청도 소재의 4년제 대학교					
	1	2	3	4	5	6
성별	여	여	남	남	남	남
나이	24	22	23	26	25	21
전공	정보통신공학	산업경영	메카트로닉 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경영

표 3. FGI 참여자 현황 (춤에 문외한인 집단)

춤에 문외한인 집단						
지역	충청도 소재의 4년제 대학교					
	1	2	3	4	5	6
성별	남	남	남	남	남	남
나이	22	22	23	23	23	22
전공	산업경영	산업경영	메카트로닉스 공학	메카트로닉스 공학	전기공학	전기공학

다음은 집단별 인터뷰 날짜와 시간이다.

표 4. 초점집단인터뷰일정

집단	인터뷰 일시	인터뷰 시간
전공자집단	2014년 5월 29일	12:30-13:50
비전공자집단	2014년 5월 26일	18:00-19:30
문외한집단	2014년 6월 2일	18:00-19:30

2. 연구 도구 및 절차

본 연구는 다음의 단계를 걸쳐 진행하였다. 먼저 인터뷰 참여자들의 모집을 위해 각 대학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인터뷰에 대한 참여 여부를 질문하였다.

참여가 확정된 대상자들에게는 먼저 구두 동의를 받고 인터뷰 날짜와 시간을 확정하여 공지하였다. 인터뷰 하루 전에는 연구의 목적과 인터뷰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인터뷰 당일에는 연구자와 연구목적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한 후 인터뷰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보장과 인터뷰 내용의 녹취 및 사진촬영에 대한 동의 서명을 받았다. 본격적인 인터뷰 시작에 앞서 참여자들은 약 15분 간 준비된 질문지를 작성하여 일반적인 성향을 살펴보았다. 설문지 항목은 대부분 기존연구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설문대상자들의 기본적인 정보를 위해서는 명명척도(nominal scale)를 사용하였고, 무용의 정의, 가치 및 인식에 관한 항목들은 선행연구 등에서 발췌하여 다지선택(multiple choice)의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보통의 초점집단인터뷰에서는 설문조사에 비해 개방형 질문과 덜 구조화된 질문을 많이 사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도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그룹별로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본 연구자는 인터뷰진행에 있어서 진행자로서 그룹의 특성에 따라 개입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먼저 전공자 그룹은 진행자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그들의 의견이 자연스럽게 토론과정을 거칠 수 있었다. 비전공자그룹 중 무용경험자 그룹의 경우 진행자의 개입은 전체적인 윤곽만을 잡아주고 인터뷰 중간 떠오르는 궁금증에 대한 답을 해주는 정도였다. 마지막으로 문외한의 집단의 경우 연구의 목적에 따라 예술춤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고 관심이 없었던 참여자들이었기 때문에 진행자는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구체적인 질문과 함께 개입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표 5>는 초점집단인터뷰 진행과정의 내용과 소요시간을 제시한 표이다.

표 5. 초점집단인터뷰 진행과정

초점집단인터뷰	내용	소요시간
도입	인사 및 연구 소개	약 10분
사전설문	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정리	약 15분
초점집단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춤이 무엇인가 • 춤의 경험이 예술춤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 예술춤이 활성화되기 위한 앞으로의 방향은 어떠한가 하는가 	약 60분
마무리	정리 및 인사	약 5분

3. 연구 내용

사전 설문은 인터뷰 대상자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예술춤에 대해 정리해보는 과정으로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이 무엇인지 들어본 적이 있는가, 대표적인 무용가들을 아는가, 공연을 관람한 적이 있는가.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 선호하는 춤의 장르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답하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춤에 대해 정리하고 인터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점집단인터뷰의 주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첫 번째 연구문제인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예술춤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기 위해 연상법을 이용하여 춤과 무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춤이 예술인지, 예술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토론을 이끌었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춤에 대한 경험이 예술춤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터뷰는 이미 경험의 유무를 구분해 집단별 인터뷰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경험에 대한 의미가 상이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예술춤의 현주소와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대학 문화 내에서 예술춤을 활성화시킬 방향성에 관해서 교육과 공연의 측면에서 자유롭게 이야기 하도록 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선정한 초점집단별 특성이 상이한 관계로 인터뷰에 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무용전공자 집단, 춤을 접해본 비전공자 집단, 춤에 문외한인 집단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1. 무용 전공자 집단

무용전공자 집단은 먼저 무용과 춤이라는 용어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3명,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명으로 각각 50%를 차지했다. 그러나 춤이 예술이라는 말에 동의하는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가 4명, 동의하지 않는다가 2명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예술춤 개념에 대한 인식이었다. 특히 예술춤에 대한 인식은 전공자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열린 사고를 나타낼 것이라 예상했으나 6명 중 3명이 예술춤은 발레, 1명이 현대무용, 그리고 모든 춤은 예술춤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2명으로 나타났다. 유일한 남자

참여자는 예술춤이라는 것이 포함할 수 있는 장르에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무대예술인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에서 더 나아가 힙합, 스트리트 댄스, 비보이 등의 대중무용 또한 그 영역을 확고히 해나가며 미래에는 모든 장르의 춤이 예술춤에 포함되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다른 참여자들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으며 무용 전공자 집단이 생각보다 다른 춤 장르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인들이 선호하는 무용장르는 대부분 자신의 전공인 발레 두 명과 현대무용 한명, 한국무용 한명, 모든 장르의 춤 두 명으로 예술춤으로 인식하는 장르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춤이 현대사회에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5명이 필요하다, 1명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문화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전원이 기여한다고 답변하였다.

무용전공자 집단의 경우 예술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아직은 널리 퍼지지 못한 상태이며 여전히 무용공연장이 지인들로 가득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마 일반인들은 예술춤을 가까이 접할 수 없는 어렵고 특별한 분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이는 많은 무용관련 전공자들이 생각해온 문제들이고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대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무용전공생들은 <댄싱9>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일반인들이 춤에 대해 관심이 커졌고 앞으로 예술춤에 대한 인식의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확신에 차 밝은 전망을 보였다. 그러므로 예술춤 경험이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또한 예술춤이 일반인들에게 더욱 알려지기 위해서는 무용인들이 좀 더 쉽고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선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댄싱9>과 같이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더불어 스타 창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효과는 대중들이 공연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며 현대무용 같이 일반인들에게 개념이 모호하고 어려운 장르에 대한 관심을 끌 수 있다고 하면서 예술춤의 생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처럼 노력이 지속된다면 춤에서의 예술성이 확립되고 일반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쉬운 예술춤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단시간에 눈에 띄는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장시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상기시켰다.

2. 춤을 접해본 비전공자 집단

춤을 접해본 비전공자 집단은 참여자 모두 이공계 학생들이었지만 춤을 처음 접한 경로가 무용 관련 수업 수강이 4명, 무용 영상 감상 1명, 무용관련 프로그램 혹은 책 경험이 1명으로 여러 방면에서 춤을 접해본 집단이었다. 특히 이들 중 5명은 춤 관련 교양수

업을 수강하였으며 수업 중에 피나 바우쉬 영화를 접해보았다고 하였다. 이와 동시에 3명은 학교의 춤 동아리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인지 이 집단은 비전공자이기는 하지만 춤이라는 장르에 전혀 낯설어하지는 않았다. 비전공자 집단은 춤이 예술이라는 것에는 전원 동의했지만 춤과 무용이 같다고 느끼는 사람은 2명,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은 4명으로 나타났다. 평소에 춤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4명, 없다고 답한 사람은 2명이었으며 발레를 접해본 사람이 2명, 접해보지 못한 사람이 4명이었고 현대무용의 경우 반대로 접해본 사람이 4명, 접해보지 못한 사람이 2명, 한국무용의 경우 발레와 마찬가지로 접해본 사람이 2명, 접해보지 못한 사람이 4명으로 드러났다. 발레를 접해보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음에도 강수진을 아는 사람이 3명, 모르는 사람이 3명으로 나타났으며 피나 바우쉬를 아는 사람 역시 3명과 모르는 사람 3명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중매체를 통해 그 인물에 대한 인터뷰 혹은 영화를 접하였기 때문에 알게 된 경우가 전부였다. 이 비전공자 집단은 예술춤을 발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명, 한국무용이 1명, 현대무용이 2명이었으며 힙합이라고 1명이 답변하였다. 그러나 선호하는 분야는 댄스스포츠가 3명, 힙합이 2명, 현대무용이 1명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참여자 전원이 춤이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현대생활에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다시 말해 비전공자 집단에게는 예술춤이라 하면 무대화되어 추어지는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이 먼저 떠올리게 되면서 거리감을 갖게 하였다. 특히 이러한 인식은 예술춤의 공연은 티켓이 비싸기 때문에 보러가기 힘들다는 생각을 갖게 하였고 그 시간에 무용 공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다른 영화를 보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생각도 한다고 했다. 이 집단의 경우 춤에 대한 관심이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나 주변 여건 상 예술춤 관람의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춤을 볼 기회가 드물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의 예술춤이 서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면서는 볼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춤에 대한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춤을 접할 기회가 드물었고 춤과 관련된 수업을 적극적으로 수강 한다기보다는 머뭇거리다가 혹은 꺼려하다가 마지막 선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춤 관련 교양수업과 수업 중의 영상물 감상은 춤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였고 앞으로 예술춤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는 수업 수강 특히 대학 교양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참여자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경우 대중예술 읽기라는 교과목이 있는데 이 수업에서 연극 관람을 필수로 하여 학생들의 문화생활을 권장한다고 하면서 춤 또한 수업 중에 필수로 공연장 관람을 제안한다면 그 계기로 인해 춤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춤 관련 수업은 수강신청 시 우선순위에서는 멀어져있는 상태이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3. 춤에 문외한인 집단

춤에 문외한인 집단은 철저히 춤이라는 장르를 배워보지도 감상해보지도 않은 집단이었다. 특히 인터뷰 내내 예술춤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전혀 없어보였다. 물론 집단별 다른 특성을 지닌 그룹을 나누어 인터뷰를 하고자한 연구 목적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내내 진행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었다. 우선 그들은 무용이라는 용어는 알지만 접해본 적은 전혀 없었다. 무용이 예술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용이라는 용어는 어렵고 멀리 있으며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춤은 예술이라기보다는 취미활동으로 즐길 수 있는 장르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무용과 춤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예술춤은 멋있는 무대화된 무용이지만 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정도는 아니라고 하였다.

예술춤은 발레나 한국무용, 현대무용을 떠올렸으며 대중매체나 수업시간의 영상물을 통해 발레를 접해본 적은 있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오히려 발레를 접해본 학생들은 강수진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고 발레를 접해보지 못한 학생들은 강수진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 더불어 춤을 접해보지 못한 이유는 관심과 기회가 없다고 대답하였고 배울 기회가 있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으로 나뉘었는데 대부분이 참여의사에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본인이 춤을 잘 추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참여자 전원은 무용의 교육적 사회적 가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거주지역이 충청도이고 학교 주변에 다른 문화시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술춤을 접할 기회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술춤은 난해하고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또한 티켓비가 비쌀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굳이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예술춤을 감상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였다. 춤에 문외한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적절한 티켓 가격을 물었더니 2-3만원까지는 고려해 볼만 하지만 그 또한 유명 무용단일 경우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예술춤 감상보다는 다른 취미활동을 하겠다는 의견이었다. 그 이유는 대학생들에게 마음의 여유가 없어 예술춤 관람은 관심 밖이라고 하였다.

이 집단에게 예술춤을 접하는 경로의 한 방법으로 최근 인기를 끌었던 <댄싱9>을 언급해보았다. 최근 대중매체에서는 오디션 형식을 프로그램에 도입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흥미를 끌게 하고 더불어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다. 그 연장선상에서 <댄싱9>이 제작되었고 무용인들 사이에서는 많은 홍보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나 ‘슈퍼스타K’를 본 참여자가 4명인데 반해 <댄싱9>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대답한 참여자가 5명이었다. 비록 이 작은 집단의 대답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그동안 많은 홍보와 대중화가 이루어졌다고 믿었던 판단에는 미흡함이 있음이 드러났다. 이를 통해 예술춤에 대한 경험이 학생들의 관심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아직 많은 부분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예술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준 이 집단에게 예술춤이 일반인들에게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음악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케이팝(K-POP)의 경우는 음악으로 인해 리듬을 타는 경우가 많고 음악으로 인해 춤이 보이게 되는데 예술춤의 경우는 음악도 안무도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연구자는 춤을 접해본 비전공자 집단에게서 힌트를 얻어 교양수업으로 예술춤과 관련된 수업을 수강할 의사를 물었지만 필수과목이 아니라면 들을 것 같지 않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므로 문외한 집단에게 예술춤의 미래에 대한 방향성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아직도 과거의 인식과 같은 상황임을 느낄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대학생들에게 춤은 문화의 한 부분으로 시대를 대변하는 그들의 삶의 의식을 이해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앞서 언급했듯이 다양한 시도로 인해 예술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하였을 것이라 예상하였는데 그 예상은 전공자와 춤을 접해본 비전공자 집단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고 춤에 문외한인 집단은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으로 관심이 없다는 반응이었다.

결과적으로 세 집단은 모두 무용과 춤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는 춤은 대중적이고 접하기 쉬운 스트리트 댄스나 힙합, Kpop 댄스를 떠올리는 반면 무용은 예술의 한 장르인 무대화된 것을 떠올렸다. 이처럼 무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여전히 일반인들에게 다가가기에 거부감이 들게끔 편견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예술춤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무용장르는 발레가 가장 많았으며 무용전공생의 경우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으나 문외한 집단의 경우 본인들의 생활과는 멀리 떨어져있는 경험할 일이 없을 것 같은 예술장르로 인식하고 있었다. 예술춤을 접한 전공자나 비전공자집단의 경우에는 앞으로 노력을 통해 점차 그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했으나 문외한 집단의 경우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소재의 4년제 대학 무용과 학생들과 충청도 소재의 이공계 학생들 중 춤을 접해본 비전공자 집단과 전혀 접해보지 못한 문외한 집단으로 나누어 예술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많은 방면에서 예술춤이 노출되었고 특정 프로그램의 등장으로 스타무용수가 창출되고 생소한 예술춤이 일반인들에게 접근하는 빈도가 잦아지면서 연구자는 시대와 문화의 변화로 사람들의 춤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을 거라 생각하였다. 무용 전공생들의 인식에는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지만 일반인들은 아직까지 춤과 무용에 대해 인식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예술춤은 아직 고급예술이고, 전문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과 동시에 일반인들에게는 많이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전공자나 문외한 집단의 경우에는 예술춤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더불어 무용이라는 단어 대신 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대중예술로 일반인들에게 많이 노출된 것으로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의견이 세 집단 모두에서 제기하였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춤의 경험이 인식에 미친 영향이었다. 특히 춤을 접해본 비전공자집단에서 실제로 한 학생은 학점을 채우기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 춤 관련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전혀 관심이 없던 자신이 점차 춤을 즐기고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물론 18명의 참여자들 중 몇 명의 생각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예술춤을 ‘춤’이라는 단어로 편안하게 다가가면 일반인들도 즐길 수 있도록 예술춤의 대중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면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춤에 문외한인 집단의 경우 지역적인 특징 때문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춤에 대해 무관심하고 적대적인 부분이 컸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별, 성별에 따라 다시 그룹을 결성하여 초점집단인터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대 사회는 춤의 장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예술로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상황이라 생각되며 지금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해왔듯이 예술성과 고유성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춤을 널리 알리고 일반인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선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일반인들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며 비싼 티켓값이라는 편견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일반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이해하기 쉬운 작품들이 많이 나와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적 축

면에서도 예술춤에 대한 어려운 이론 혹은 실기만이 아니라 다양한 작품을 접해 볼 수 있는 감상의 기회와 함께 이론도 익히고 직접 춤을 배워보는 통합수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처럼 서울소재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현실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비록 예술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경험의 기회도 적었고 서울에서처럼 일반인과 만나는 예술춤 행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하기에 많은 학생들이 예술춤을 무대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지루하고 난해한 장르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문화소외계층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한 결과 아직까지 예술춤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확장시키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공연과 교육 측면에서 예술춤 인식에 대해 더욱 노력하고 지역별, 성별 예술춤에 대한 초점집단인터뷰를 이용한 인식조사가 이어지길 바라는 바이다.

참고문헌

- 강운선(2011), “시대적 변화에 나타난 한국춤 인식실태분석과 인식전환을 위한 방안모색”,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김말복(2011), **무용예술코드**, 한길사.
- 김무철(2001), “한국사회변동에 따른 춤문화 변천연구: 해방이후 춤문화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지수(2008), “한국 전통무용공연의 비전공자 인식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연구: 중요무형문화재 전통무용 7종목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 신상미(2013), **인간은 왜 춤을 추는가: 인류의 춤 문화 코드 읽기**,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옹영신(1998), “대학생의 무용 인식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윤택림(2013),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 아르케.
- 이경순(1999), “현대무용 대중화에 대한 무용 전공 학생들의 인식조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지원(2014), “리얼리티 서바이벌 댄싱9의 성공요인 분석과 발전방향”, **한국무용예술학회 47권 2호**, 185-211.
- 전혜정(1993), “1980년대 춤문화의 형태와 특색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조수정(1993), “무용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실태 연구: 서울의 청년기, 성인기를 대상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영식(2010), “대학생의 무용 예술에 대한 인식도 조사: 서울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Langer, S.(1957), 박용숙 (역, 1984), **예술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Lange, R.(1975), *The nature of dance: An anthropological perspective*, 최동현 (역, 1988), **춤의 본질 -인류학적 관점에서**, 문예연구사.